

## 돈이란 베풀기 위한 것이다.

신흥여자중학교 1학년  
김새롬

인간들이 만든 물건인 돈. 이 돈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카드빚 독촉에 밀려 사기를 치고 한 순간의 보충으로 인해 도둑질을 한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을 배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 여인의 귀여운 아기로 태어나 사랑을 받았지 도둑질을 배우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은 모두 돈으로 인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이라는 존재가 애초에 사람들 사이에 얼굴 찌푸리게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구실을 주기 위해서 생겨난 것은 아닐 것이다. 모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이다. 돈은 물건을 사고 파는 가치 뿐만 아니라 돈이 손에 쥐어져 있을 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아보기에 만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 돈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멋을 위해서,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사람들의 유행에 밀려 눈살에 밀려 마구잡이로 돈을 이용했던 사람이 된 적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언제나 엄마가 시장에서 사 오시는 옷들을 입던 나였다. 지금까지 메이커라는 것도 제대로 몰랐을 뿐더러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이었다. 그러나 메이커 옷을 잘 입는 아이들이 주목받고 인기 있어 조금씩 관심이 쏠리는 어느 날이었다. 상표 없는 점퍼를 입고 학교에 나간 적이 있었다. 몰려오는 남자아이들은 내 옷을 보고 킬킬 웃으면서 말하였다.

“너 옷 어디서 샀어? 요즘도 상표 없는 옷 입는 사람이 있나?”

상표 없는 옷이 웃음거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한 나였다. 내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개졌었다. 예상치 못한 놀림에 겉으로는 관찮은 척하려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상표 없는 것은 옷 취급도 안 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야속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내 점퍼로 가 있는 듯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점퍼를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 두었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절의 가슴속 한 획을 그은 그 한마디는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결국 일하고 돌아온 엄마에게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게 되었다.

“엄마, 나도 메이커 사줘.”

“애가! 그냥 아무거나 입어.”

“내 친구들이 나 상표 없는 점퍼 입었다고 놀렸단 말이야.”

그러자 엄마는 할 말을 잃으신 듯하였다. 엄마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요즘 아이들이 너무 메이커에 집착한다는 생각이 표정에 다 드러나는 듯하였다. 또한 딸의 대한 안쓰러움 까지 함께 들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메이커라는 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니야. 값싸고 질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 돈이란 베풀기 위한 것이다.

신흥여자중학교 1학년  
김새롬

그렇게 놀라지 않은 척 하셨지만 그 후로 엄마는 주로 메이커를 사오셨다. 엄마도 내 등살에 밀려 메이커만 추구하는 잘못된 원리에 돈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 날의 황당함과 딸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인해 엄마도 메이커에 좀 더 눈길이 갔으리라 생각한다. 죄책감이 내 마음을 감쌌다. 엄마에게 잘못된 돈 사용법을 가르쳐준 내가 미웠고, 메이커를 추구하는 다른 아이들도 미웠다. 돈을 메이커라는 하나의 상술에 휘둘러 필요 없는 것에 쓴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또 멧에 붙들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다. 그 날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날이었다. 난 엄마가 좋은 옷이라고 주신 몇 만원을 학교에 들고 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날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채로 말이다. 수업하다 들어오는 아이들의 손에는 모금함이 있었다. 저절로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돈으로 손이 갔다. 돈을 손으로 꼭 쥐고 모금함을 바라보았다. 한두명씩 쭈뼛쭈뼛 모금함 앞으로 나갔다. 돈을 내고 있는 아이들 속에서 만원을 잡은 손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만원을 내자니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고, 좋은 옷을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모금함을 든 아이들은 교실을 나가고 말았다. 왠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돌이 묵직하게 올려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난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물질적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불우이웃에게 베풀어 준 후에 돌아오는 기쁨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옷을 샀지만 옷이 담긴 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부르스 바턴의 “누구도 모르는 자“라는 책 중 유독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부분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두 개의 바다이야기이다. 팔레스타인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갈릴리해는 맑아서 물고기가 살고 있다. 초록색 물보라가 방파제를 수놓는다. 나무들은 그 위에 가지를 드리우고 있고 목마른 뿌리를 뺀어 갈증을 풀어 줄 물을 빨아들인다. 산위에서 떨어져 내리는 요단강은 이 바다에 빛을 더한다. 바다가 햇빛 아래 밝게 웃는다. 인간은 그 옆에 집을 짓고 새들은 둥지를 튼다. 바다가 있어, 갖가지 생명은 더 행복하다. 한편 요단강이 남쪽을 달리다가 다다른 곳에는 또 다른 바다가 하나 더 있다. 여기에는 물고기가 일으키는 물보라도 펄럭이는 나뭇잎도 새들의 노래도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없다. 여행객들도 급한 용무가 아니고서는 이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공기만이 물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고 인간도, 야수도, 새들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 갈릴리해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바다의 상이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 돈이란 베풀기 위한 것이다.

신흥여자중학교 1학년  
김새롬

요단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요단강은 똑같이 좋은 물을 똑같이 비워낸다. 바닷가의 토양 때문도 아니고, 그 토양이 만들어진 곳 때문도 아니다.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다. 갈릴리해는 요단강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어 두지는 않는다. 한 방울이 흘러들어 오면 한 방울을 흘러나간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술궂은 이 바다는 강물이 욕심이 나서 내놓지를 않는다. 한 방울이 들어오면 바다는 그것을 가져버린다. 갈릴리해는 내 주고, 살아있다. 반면 이 바다는 아무것도 내 주지 않는다. 이 바다에는 죽은 바다, '사해(死海)'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팔레스타인에는 두 종류의 바다가 있다.

이 두 바다는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아깝고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한번 베풀고 나면 살며시 미소가 얼굴에 머문다. 그것만으로도 보상을 충분히 받은 셈이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다. 베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베풀을 낳는다. 언제 어디서인지도 모를 자신을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낳은 베풀일 것이다. 그 베풀을 보게 된다면 더 없는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들만으로도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돈이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베풀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돈을 있는 힘껏 베푸는 한 천사에 대한 기사가

생각난다. 우리는 추운 겨울날, 구세군이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바쁜 날이면 그 종소리가 유난히 귀찮게 들리는 때도 적지 않다. 그런 구세군에 50세의 남자가 2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내고 갔다는 것이다. 수표 뒤에는 "뉴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명예를 중요시 하지 않는 그 사람의 가슴 훈훈해 지는 글씨가 써져 있던 것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뽐내려 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에 내 지난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볼수록 내 고개는 점점 숙여졌다. 가슴 치켜세우고 말할만한 베풀은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모금활동에 용돈 조금 냈던 것뿐이었다.

베풀을 하나씩 할수록 돈은 줄어들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베풀은 하면 할수록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통장 속 나 자신이 흐뭇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웃을 수 있는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돈은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일어나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나도 저 기사 속 남자처럼 나에게만 쌓기보다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진다. 돈은 나눠주고 베풀어주기 위해 있는 물건이란 것을 깨우친 나이기 때문이다